

치 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이룬 성취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인지 고민하는 마음마저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향기로움을 실천하면서 현대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고, 한국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잇는 한국불교미술협회의 24번째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종교가 예술적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듯이 불교미술 역시 오랜 시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대마다 민족의 평안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겠다는 마음은 한시도 놓치지 않아 왔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불교미술이, 현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더 널리 알려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전시가 그 의미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기에, 한 분야를 넘어 사람과 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뜻 깊은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의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학한 인재들로 불교예술가의 본분에서 신심과 열정을 다하여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불교미술이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와 당당히 소통하고, 독자성을 지니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국불교미술협회 여러분의 원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계승과 재창조의 융합에 끊임없이 도전해 온 불교미술협회의 전시가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잇는 가교가 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 대중의 마음을 밝히는 뜻 깊은 불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며, 항상 부처님의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